



# 김관영 지사, 장수·남원 폭염 취약현장 점검

장수 복지관·남원의료원 방문  
냉방시설·무더위쉼터 운영 점검  
온열질환 응급대응체계 확인  
현장 의료진 간담회...애로 청취



22일 김관영 도지사가 장수노인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온열질환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전북도는 22일 김관영 도지사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현장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장수노인장애인복지관과 남원의료원을방문해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온열질환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올해를 평년보다 길고 강한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장수노인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과 냉방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폭염

대응 상황을 살폈다. 장수노인장애인복지관은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냉방기 점검, 실내 적정온도 유지, 폭염 예방수칙 안내, 건강상태 확인 등 다양한 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복지관은 폭염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보호망”이라며 “냉방시설 관리와 이용환경 점검에 만전을 기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북 동부권 공공의료 거점기관인 남원의료원을 방문해 온열

질환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응급실과 주요 의료시설을 둘러보며 응급 환자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응급실 운영 체계를 확인하고, 119구급대 및 보건소와의 협력체계, 의료인력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폭염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의료진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남원의료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지역 의료안전망”이라며 “폭염 대응 기간에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온열질환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도는 폭염대책기간(6.15.-9.30) 동안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보호활동,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응급의료 대응 체계 강화 등을 통해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의회 민주당, 의장 후보에 김희수

제13대 전반기 후보 선출  
이병도·박정규 부의장 후보



김희수 도의원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도의회 2층 의총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13대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 선출을 위한 민주당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

정종복 원내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당내 경선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를 이끌어갈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각각 선출했다.

의장 후보는 결선투표 끝에 김희수 의원이 최종 선출됐다.

제1,2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후보자는 단독 후보를 추대했다.

제1부의장 후보에는 이병도 의원, 제2부의장 후보에는 박정규 의

원, 상임위원 후보로는 ▲의회운영위원장 강태창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염영선 의원, ▲농업복지환경위원장 권요안 의원, ▲경제산업건설위원장 김동규 의원, ▲문화안전소방위원장 김성수 의원, ▲교육위원회장 전용태 의원이 각각 추대됐다.

이날 선출 및 추대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간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3대 임시회(제429회) 본회의 선거절차를 거쳐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 김민석 총리 “당이 국정 발목” 작심 발언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급락과 관련, “선거 결과가 전체적으로 당과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도 있고, 당의 지지율이 내려가며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 이재명 대통령은 더 잘하기 어려울 정도의 리더십을 보여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로 (높게) 나타났으나, 선거 결과가 예측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성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는 선거 이전보다 더 당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전체적인 당정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더 넓고 깊게 노력해야 한다. 당이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질 때”라고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총리는 ‘당 복귀 후 역할’에 대해 “당 지지율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국정 동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당이 분열하면 정당원 모두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며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자기와 입장이 다른 상대를 멸칭화해서 부르는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절제하는 것이 좋다”며 “민주당은 이제 여당으로서 품격을 높여야 한다”며 민주당의 단합을 강조하면서도 비난을 주도하는 당내 지도부를 꼬집었다.

/서울=김영목기자

## 법사위원장 ‘평행선’...여야 원구성 협상 또 결렬

법사위 이전에 협상 최종 결렬  
국힘 “제2당 견제 역할 보장해야”  
與 “시간끌면 단독 결정하겠다”  
후반기 국회 출범 차질 불가피



한병도 원내대표

늘도 법제사법위원회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협상이 결렬됐음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희의 기본 원칙”이라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 마냥 기다리지만 않겠다. 과거 관례처럼 협의와 협

상 때문에 국회가 일하지 않는 것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원구성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의석수대로 (여야) 11 대 7로 나누는 문제와 계속 시간 끌기만 했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결정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두 가지를 놓고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경제 위기, 중동 상황도 불확실한 상황이라 이런 문제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국회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상임위 구성을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독 원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회동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사에서 이런 사태가 언제 있었나”라면서 “그래서 반드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도, 쌀 공급과잉 대응 농가 지원 확대

올해 첫 도입 ‘수급조절용 벼’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혜택

포함했다. 이에 따라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ha당 50만원의 생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전남·경남 등 타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 농가에는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 우선 배정 혜택도 제공된다. 논공에서 수급조절용 벼로 전환한 경우 ha당 186포대(40kg 기준), 일반 벼에서 전환한 경우에는 ha당 61포대가 추가 배정될 예정이다.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할 경우 1ha 기준 RPC(미곡종합처리장) 벼 판매대금 약 621만원과 전락작물직불금 500만원 등

총 1,121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도는 시·군 및 농협과 협력해 사업 신청 마감일인 오는 6월 30일까지 현장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며 농업인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쌀값 안정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라며, “ha당 50만원의 추가 지원금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파격적인 혜택이 준비된 만큼, 도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가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수급조절용 벼’ 재배 농가에 ha당 50만원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전락작물직불제에 새롭게 포함한 품목이다.

도는 정부 정책의 현장 안착과 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수급조절용 벼를

군산시 공고 제2026-1596호

### 군산시 월명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열람공고

1. 군산시 월명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군산시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2일

군산시



가. 열람내용 : 군산시 월명동 일원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나.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2026. 6. 22. ~ 2026. 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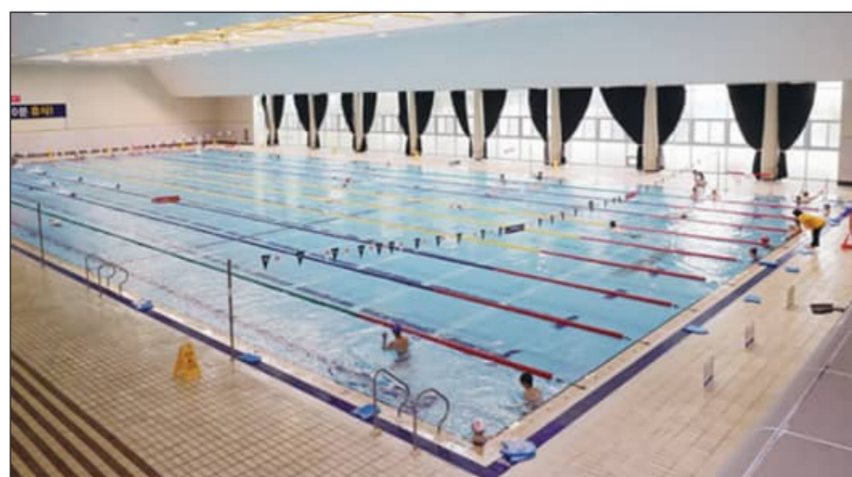
다. 열람장소 : 군산시청 2층 도시재생과, 월명동 행정복지센터

라. 기타사항 : 본 열람내용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 공공 실내수영장 수질 ‘모두 적합’

여름철 앞두고 위생상태 점검  
도내 실내수영장 23곳 검사  
미생물·중금속 등 기준 충족



덕진실내수영장

<사진=전주시설공단>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을 앞두고 도내 공공실내수영장 23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설이 법정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정기 수질검사와 별도로 여름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추진된 것으로, 수영장 수질 상태와 위생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는 소독 효과와 미생물, 유해 중금속 등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수질기준 9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도내 공공실내수영장 23개소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검사와 함께 여과필터 교체 주기와 소독제 사용 실태 등 수질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했다. 시설별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개선·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김은지 기자

전경식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공실내수영장의 안전성과 위생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민들이 여름철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전 야간 관광 '왕과의 산책' 운영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전주만의 특별한 경험

전주 경기전 역사 프로그램 '왕과의 산책'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 '왕과의 산책'은 오는 10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시민 및 관광객들과 함께 역사 해설이 곁들여 운영된다. '왕과의 산책'은 올해 9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간 '왕과의 산책'은 참가자들의 최상의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왕과의 산책' 시작 이후 전주시의 대표 야간 콘텐츠 관광에도 그 명성을 잇고 있다. '왕과의 산책'은 27여명 배우가 경기



전주시 '왕과의 산책'은 오는 10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시민 및 관광객들과 함께 역사 해설이 곁들여 운영된다 <사진=전주시>

살문과 정전, 전주사고, 예종대왕대실 및 비, 조경도, 부속채 등 경기전 내 주요 공간을 이동하며 각 장소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직접 마주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경기전 역사적 의미로 전주라는 도시가 지닌 역사성을 깊이 이해하고 체감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왕과의 산책을 통해 관람 종료 이후 은은한 조명 아래 펼쳐지는 경기전의 고즈넉한 풍경은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 선물과 함께 오직 전주 여행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은 프로그램 핵심이다. 한편 올해 '왕과의 산책'에는 혹서기(7월 25일~8월 29일)와 10월 3일에는 휴연하게 된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민 '삶의 지혜' 인문학 강좌

'유쾌한 인문학 시즌 3' 운영

전주시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민인문학'을 준비해 운영한다. 이에 시는 '유쾌한 인문학 시즌 3' 프로그램을 22일부터 오는 7월 28일까지 매주 월·화 오후 7시 강좌한다. 시의 '유쾌한 인문학'은 흥미로운 주제와 시민들이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과학철학 △동양철학 △삼국사기 △신화 등 다양한 인문학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매주 월요일 조선 후기 실용 지식의 집대성인 '임원경제지'를 중심으로 학문과 여행, 의학, 음악, 천문, 삶의 철학까지 총 6개 강좌가 진행된다. 이어 매주 화요일에는 신화학자인 김영(정강문화산업대) 박사가

신화를 주제로 조지프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읽기와 '일상의 균열과 미지의 부름' 등을 강의한다. 또 이번 유쾌한 인문학에서는 현장과 이론의 지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인문학여행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평소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자녀 양육 때문에 주저하는 시민들을 위해 동시간대(화요일 오후 7시)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인문학 '그림책으로 만나는 세상(신화편)'도 함께 운영된다. 이번 유쾌한 인문학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강료는 3만원(어린이 인문학 5000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e.jeonju.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수익금 기증

지역서점 8곳 동참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수익금 일부가 지역사회 아동 도서 기증을 위해 사용됐다.

이에 시는 22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실에서 지역서점 8개소 기증도서를 전주시 가족센터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도서 기증은 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책문화 가치 확산 프로젝트인 '함께

라서(書) 중 '책콩20' 나눔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도서 기증에 참여한 지역서점은 △그래의 꿈 △까까 어린이서점 △세광도서 △소소당 △어린이서점 또래 △잘 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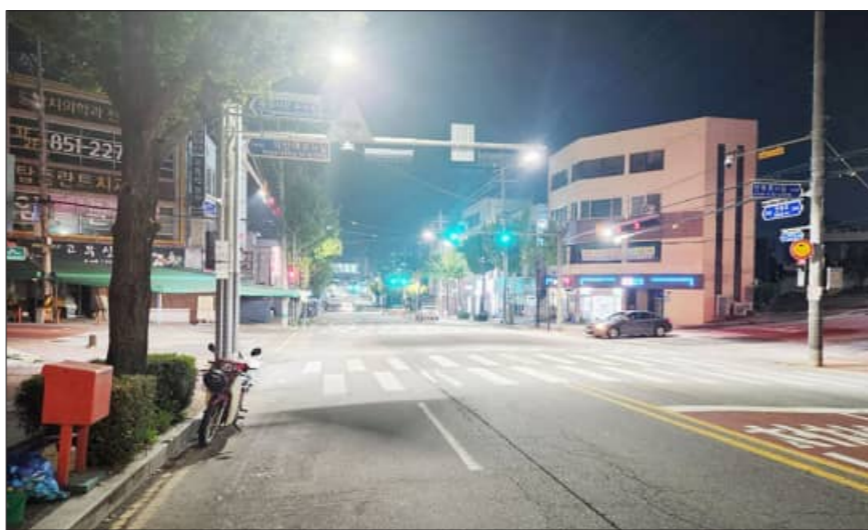
언어들 △책보 책방 △흥지사립 등이다. 전달된 도서는 아동도서 196권과 일반도서 409권 등 총 605권(500만원 상당)으로 전주시가족센터를 통해 독서 활동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경찰 야간 보행자 횡단보도조명 개선

'교통환경 Re-바이벌' 정책 추진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교통환경과 문화를 개선하는 '교통환경 Re-바이벌'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재영 청장은 "야간 횡단보도가 너무 어둡다"라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 핵심 과제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시설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시청 및 완산·덕진경찰서와 협업해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설 신규설치 및 내구연한 경과 교체·정비 △집중조명시설의 조도와 각도 국



토교통부 표준 기준 맞춰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6월 22일부터 3주간 합동 T/F팀을 통해 야간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미설치 구간 설치 및 노후 시설 교체 등 본격적인 정비 작업을 전개해 연내 보행자 사고 예방 효과를 가시화할 방침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교통환경 Re-바이벌' 정책의 핵심은 야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치밀하게 반영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밝은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의용소방대 '폭염안전지킴이' 추진

어르신 대상 폭염 예방활동 전개

전주완산소방서-전주완산의용소방대연합회는 '폭염안전지킴이'를 추진하며 폭염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선다. '폭염안전지킴이'를 추진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의용소방대원 150여명이 참여한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폭염이 지속되는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안내하는 등 생활 속 폭염 예방수칙 홍보에 힘쓰고 있다. /정소민 기자

또 독거노인과 고령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전화와 방문 확인 등 돌봄활동을 병행하며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과 신속히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논·밭과 공사현장 등 야외작업장을 중심으로 예방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순찰 과정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휴식을 당부하고 열음물과 폭염 예방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현장 중심의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소방 '소방 법률고문' 위촉

황규표·강호석·진태희 변호사 위촉 소방관 적극적인 직무 수행 지원

전북소방 '소방 법률고문 위촉식'에 △황규표 변호사 △강호석 변호사 △진태희 변호사 등 총 3명이 위촉됐다. 22일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소방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위 3명 소방 법률고문 위촉식을 거행 했다고 밝혔다. 소방 법률고문 위촉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조례는 2024년 2월 16일 제정돼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조례 제정 이후 2024년 7월 소방 법률고문을 최초 위촉해 운영해오며 기존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연

임과 신규 위촉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소방 법률고문 임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

지 2년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소방 법률고문은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현안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민사·형사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재난현장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전문 의견 제공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긴급성과 위험성이 높은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법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 지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소방행정 전문성과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대병원 고난도 심장시술 타비 400례 달성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대동맥판막협착증 치료의 대표적인 고난도 시술인 경피적대동맥판막치환술(TAVI·타비) 400례를 달성하며 호남권 심혈관질환 치료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2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겪던 80대 환자에게 타비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누적 400례를 기록했다.



400번째 시술을 받은 환자는 시술 후 안정적으로 회복해 건강할 상태로 퇴원했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심장에서 전신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대동맥판막이 좁아져 혈류 흐름을 방해하는 질환으로, 호흡곤란과 흉통, 실신 등을 유발하며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개흉수술에 따른 부담이 커 보다 안전한 치료법이 요구된다. 전북대병원은 환자 평가부터 시술, 회복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환자별 상태에 맞춘 최적의 치료 전략을 수립해 안전성과 치료 성과를 높이고 있다. /정소민 기자

특히 전북대병원은 2017년 전북지역 최초로 타비 시술에 성공한 이후 꾸준히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지난해 7월 300례를 달성한 데 이어 불과 1년 만에 400례를 기록하며 최고 수준의 시술 역량을 입증했다. 한편 타비 시술은 80세 이상 고령자, 외과적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 또는 수술 고위험군의 경우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5%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 시술 상담을 위한 심장내과 외래 진료 예약은 대표 콜센터(1577-7877)를 통해 가능하며, 1·2차 병원에서 전북대병원 진료협력센터로 진료의뢰서를 직접 송부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민참여공원 성과 공유

우수정원 3개팀 전주시장 표창 수여

22일 전주시는 '시민참여정원 조성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성과공유회'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시민참여정원 조성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되돌아보며 완성된 우수 시민정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 참여정원 조성 프로그램은 바람 회 이후 도시 속 정원을 가꾸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했다. 정원 조성에는 약 3달간 초록정원관리사 31명과 분산형 지역주민 등 121명

등 총 152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상지별로 디자인부터 조성까지 식재 및 실습 교육을 현장에서 진행하며 가드닝 역량을 키웠다. 이와 함께 시는 정원 조성의 공간계획 및 참신성, 활동일지, 시민참여도, 유지관리 상태를 종합 평가해 우수정원 3개 팀에게는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시는 시민이 주도해 일상 속 녹지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을 그 의미로 앞세워 시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정원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경찰 장마철 집중호우 '교통통제 훈련'

전북경찰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교통안전 확보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15개 경찰서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통제 훈련을 전개했다. 훈련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기상적인 폭우나 침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동조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15개 전 경찰서가 일제히 참여해 지하차도나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에 임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침수 위험

도로의 사전 통제, 우회 도로 확보 및 차량 유도,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망 가동 및 현장 합동 대응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는 순식간에 도로 통행을 마비시키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현장 통제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실전 대응 능력을 키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기안전공사, 주민참여위원회 개최

## 지역 맞춤형 상생 로드맵 구체화 ESG경영 강화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통한 ESG경영 강화에 나섰다.

공사는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지역 주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8일 '2026년 상반기 주민참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전년도 제안 안전건의 이행 현황과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주민참여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지난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주요 안전으로 대두됐던 '화재피해주민 해결사례'에 대한 사후 피드백이 집중적으로 공유됐다.

지난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완주군청, 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 등과 협업해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사전제폭 지원을 실시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공사는 올해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자립준비청년의 정서 지원 사업, 안아드림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ESG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남화영 사장은 "주민참여위원회는 국민이 제갈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와



진정성 있는 ESG경영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공동체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조성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북 5월 수출 25% 증가

수출 증가율 전국 5위  
금·농약이 성장 견인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한 6억4630만 달러, 수입은 2% 증가한 4억8157만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1억6473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동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한 878억2139만 달러, 수입은 21% 증가한 607억8509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중 당월 수출 증가율이 제주, 충남, 경기, 세종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5월 전북 수출 1위 품목은 금(金銀)이었다. 금과 은 수출은 8,205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00%나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농약 4640만 달러, 정밀화학원료 4403만 달러, 자동차 3827만 달러, 동제품 3,752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들 상위 5개 품목은 전체 수출의 38%를 차지했다.

금은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1위 효자 품목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번달에도 리사이클링 기반 전락 금속 수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향후 글로벌 폐기물 배출 주기에 따른 원료 수급 여건 및 미국 관세정책 등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농약은 5월 전북의 2위 수출 품목으로, 세계 최대 농약 시장 중 하나인 브라질에 전년 동월 대비 203% 늘어난 817만 달러를 수출했다.

5월 전북 수출품목 13위 품목인 철강 수출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저효과와 미국의 건설 및 인프라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1,524만 달러를 수출해 올해 들어 월간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한편, 기존 주력 품목인 동제품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4% 감소한 반면 일반 수출은 129% 상승한 370만 달러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동박 제조 기술을 인정한 일본 종합무역상사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농협임직원 '호국보훈가족' 감사 전달

## 전북동부보훈지청 동창회 '호국보훈' 합동참배

호국보훈의 달! 22일 전북농협본부는 나라사랑 헌신에 희생한 호국보훈 가족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국가유공자 호국보훈 및 보훈가족 감사의 마음 전달에는 전북농협임직원 그리고 전북동부보훈지청 관계자들의 뜻이 모아져 마련됐다.

전북농협임직원 및 동부보훈지청 관계자들은 이날 보훈가족을 모시고 국립임실호국원 현충탑을 방문해 호국보훈에 대한 합동 참배에 존엄함을 보였다.



22일 전북농협본부는 나라사랑 헌신에 희생한 호국보훈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진=전북농협>

이들은 이어 임실치즈마을을 방문해 우리 쌀로 만든 치즈피자를 다같이 만들어 보훈가족 초청 호국보훈 행사를 행복 전달로 이음했다.

관련해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우리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의 영위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농협은 그 희생에 보답하고자 매년 1사 1묘역 가꾸기 현충원 묘역 봉사활동 등 호국보훈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경준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국민연금 고성능 GPU "AI 대전환 기반 마련"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도입과 운영 전 과정 협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대표 이원주)와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인프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난 3월 국민연금과 카카오가 체결한 '인공지능 기반 공공 서비스 혁신 및 업무 전환에 관한 양해각서'의

연장선이며, 두 기관은 인공지능 인프라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 인공지능 환경 구현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구축 및 기술 지원 △ 카카오투라드 인공지능 플랫폼 활용 △ 인공지능 모델 테스트 및 실증 환경 조성 △ 공공 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등이다.

국민연금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안정

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마련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가동에 필요한 전력, 냉각 시설을 갖춘 '인공지능 서버 전용 특화 구역'을 완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수용 능력과 안정성도 한층 강화했다. 이 시설은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지정돼 있는 국민연금 ICT센터에 조성됐다.

이원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는 "전 국민의 데이터를 다루는 국민연금

의 인공지능 혁신은 안정적인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자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 확보는 민관 협력을 통한 적극 행정 사례"라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테크노파크>

## 전북TP '제4차 중소기업 위기대응협의회'

전북TP는 22일 '2026년 제2차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상시 모니터링 및 위기징후 분석을 통한 하반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 결정(안)의 완성도 제고 및 연계지원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 밀집지역별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반기별 지역별 위기징후 단계를 결정하고 다음 반기에 주의 및 심각 단계로 결정된 밀집지역 내 기업에 Stand-up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위기대응협의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전북신용보증재단,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전북테크노파크 등 주요 혁신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 위기 징후 지역의 원인 분석 △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 △ 위기지역 내 기업의 현장심층조사 등을 반영한 중소기업 밀집지역별 위기징후 단계 결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 결정(안)은 오는 25일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후 올해 7월 중 중소기업 처기업무에서 최종 확정 통보로 결정된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주파티마신협>

## 전주파티마신협, 취약계층 김치 나눔

전주파티마신협(이사장 양춘제)은 지난 19일 임직원 10명,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주파티마신협 홍보보상단

20여명과 함께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승현)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여름맞이 열무물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여름김치장지 나눔행사는 전주파티마신협이 2020년부터 6년 동안 진행해온 사회공헌활동이다. 여름철 무더위로 입맛을 잃기 쉬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 직접 담근 시원한 열무물김치를 전달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전주파티마신협 홍보보상단과 임직원 일동은 9kg 열무물김치 140박스를 담가 전북동부보훈지청과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의 추천을 받은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 140가구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파티마신협 양춘제 이사장은 "무더운 여름철,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시원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파티마신협은 지역사회를 위한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2020년부터 완산구청과 '어부바 간식꾸러미'를 지원하고, 가정의 달 어부바 도시락 나눔 행사, 추석맞이 사랑의 음식 나눔 행사, 신협 어부바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전북은행 'JB 청년미래적금' 출시

최고 연 7% 금리

JB 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청년들의 안정 정책형 금융상품 'JB 청년미래적금'을 22일 출시했다.

'JB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상품은 기본금리 연 5.0%에 우대금리 최대 연 2.0%를 더해 최고 연 7.0%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총 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거나,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다.

이수 시 연 0.2%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실적 연 0.5% △전북은행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 연 0.3% △전북은행 계좌 간 자동이체를 통한 입금 실적 연 0.3% △마케팅 상품 서비스 안내 전체 동의 시 연 0.2% 등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정부기여금은 가입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형 가입자는 납입금액의 6%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소상공인 등 우대형 가입자는 요건 충족 시 납입금액의 12%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보유 고객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후 가입이 확정되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는 방식으로 연계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할 경우 연계가입이 불가능한 만큼 가입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영태 기자

# 찾아가는 공연 '군산문화배달' 본격 시동

내달부터 12월까지 클래식·대중가요 등 시민 생활공간 및 직장 맞춤형 무대



<사진=군산시>

'2026 군산문화배달'은 공연장까지 찾아가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늘 머무는

생활권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군산시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선정된 클래식, 대중가요, 미술, 댄스 등 관내 18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프로그램이 마을 회관,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주민들의 일상 공간은 물론, 평일 여가를 즐기기에 어려운 관내 기업체와 일터까지 직접 찾아가 맞춤형 공연을 배달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군산문화배달은 문화공연이 필요한 곳이면 군산 어디든 찾아가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생활권 복지시설부터

삶의 현장인 일터까지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관내 유관 기관과 기업 관계자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시 관내에 소재하고 최소 30명 이상의 관람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 단체, 기업, 마을공동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배달이 가능한 공연단체 소개와 신청서는 재단 누리집에 자세히 소개돼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군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행사 및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안내 사항은 군산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승길 기자



<사진=익산시>

## "익산 매력 전국에 알린다"... 예능 방영

익산백제 가치·매력 조명

익산의 찬란한 백제문화와 현대적인 매력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익산시는 특집 예능 프로그램 '이리오너' 익산편이 오늘과 오는 30일 오후 7시 40분 전주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리오너' 익산편은 가수 이기광과 오하영이 출연하며, 세계유산과 현대 문화가 공존하는 익산의 매력을 체험형 예능 형식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출연진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타임슬립' 콘셉트로, 백제 역사 유적부터 최근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까지 익산 곳곳을 여행하며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한다.

오늘 방송되는 1부에서는 고도환

눈(愛) 세계유산센터와 익산시 시청사, 왕궁박물관 등을 찾는다. 출연진은 역사와 문화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익산의 매력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30일 방송되는 2부에서는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 왕궁리 유적 등 익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명소를 집중 조명한다. 특히 '2026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담겨 기대를 모은다.

촬영을 마친 출연진은 "익산백제의 역사 유적지를 직접 둘러보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리오너' 익산편은 전주 KBS 지역 방송을 시작으로 오는 8월 전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확대 방영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전북교육청, 학교운동부·갑질·인사 집중 개선

부패 취약분야 지정 신고망·전보 접수제 적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정례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학교운동부, 조직문화(갑질), 인사 시스템을 3대 부패 취약분야로 지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22일 본청 회의실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간부 공

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상반기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전북교육청은 4대 전략, 14개 분야에 걸쳐 39개 과제를 진행 중이며, 현재 전체 과제의 평균 이행률은 54%로 집계됐다.

분야별 핵심 조치로, 학교운동부는 불법 찬조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QR코드 익명 신고망'을 구축했다.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하급자가 상

급자를 지도하는 '거꾸로 멘토링'을 도입했다. 인사 분야는 직무 중심 '전보 접수제'를 고도화하고 인사 청탁 시 페널티를 부과해 연구주의를 배제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간부 공무원들이 먼저 기록권을 내려놓는 하향식 쇄신을 통해 관행을 끊어내고 종합정례도 1등급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김제시립도서관, 7~8월 '실감동화나라' 운영

김제시립도서관은 내달부터 8월까지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실감동화나라'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감동화나라는 대형 스크린과 바닥 등 5개 면을 활용해 참여자가 직접 터치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가족과 함께하는 실감동화나라'는 기존 아이 중심의 체험에서 나아가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진행해 가족 단위 이용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 △4차원 공룡세계 탈출 대작전 △색깔왕국의 생일파티 등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실감형 동화 콘텐츠로 구성됐다.

신청은 오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김제시립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0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2026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전통예술의 대중화·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에 시작된 이후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재단은 올해 총 20회의 공연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전통예술 무대를 선보이며, 전북 전역에 전통예술의 가치와 매력을 확산할 예정이다.

공연은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상설형과 군 단위 지역을 찾아가는 △순회형으로 운영된다.

상설형 공연은 (사)전통문화마을이 운영하며, 지난 20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총 12회 진행된다. 판소리,

가야,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무더운 여름밤 도민과 지역 방문객에게 시원한 국악 한마당을 선사할 예정이다.

순회형 공연은 박현희 무브먼트가 운영하며, 오는 27일 오후 3시 완주군 고산 미소시장을 시작으로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진안 등 총 8개 군 지역에서 진행된다. 문화예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전통예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지난 20년간 도민과 함께하며 전북 전통예술의 저변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전통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창작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 고창군 '생활제조대회' 성황리 개최

선수단 등 500여명 참가 군민 건강 증진 도모

고창군민들의 건강한 기운과 활기찬 에너지가 가득한 '2026 고창군 생활제조대회'가 지난 20일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고창군체육회(회장 오철환)가 주최하고, 고창군체육회(회장 강미숙)가 주관해 생활제조 동호인 선수단과 가족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동호인 간의 결속을 다지고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화합의 대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개회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과 군의원, 체육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동호인



<사진=고창군>

선수단을 격려하고 대회를 축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체육을 즐기실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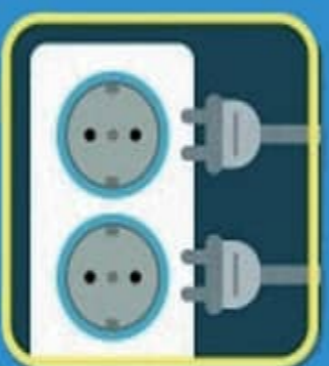
# 여름철 에너지 절약 방법



에어컨 26도 설정 하기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휴대폰 충전 완료시 플러그 뽑기



에어컨 필터 2주마다 청소 하기



문닫고 냉방 영업 하기



영업종료후 간판 옥외등 소등

### 정읍시, 8월까지 매주 화·목 '영농현장의 날' 운영

정읍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오는 8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전문 공무원 32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파견해 농가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영농현장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이끄는 현장기술 지원단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 8개 팀, 총 32명으로 꾸러졌다. 이들은 매주 담당 구역으로 직접 출장해 시기에 맞는 농업 지도와 병해충 예찰을 진행한다. 현장에서 농민들이 마주하는 밀집한 고층을 귀담아듣고 실질적인 대안과 해법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벼 분얼기 잡초 방제와 물 관리 △논콩 초기 생육 관리 △고추 병해충 방제와 시비 관리 등이다. 최근 심해지는 폭염이나 집중호우 같은 여름철 기상 재해에 농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지도도 함께 펼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영농철 현장기술 지원단의 전방위적인 활동을 거쳐 현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역사 품고 보석 빛는다" 익산 송리마을 '쉐리온' 개관

근대 익산 주단거리의 기억을 간직한 옛 서울양행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익산시는 송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 건축자산인 '옛 서울양행'에 금속공예 체험 공방이자 주얼리숍인 '쉐리온'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쉐리온은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됐다. 주얼리 제작·판매, 금속공예 체험이 한 공간에서 이뤄져 방문객들은 장인의 작업 과정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쉐리온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쉰다. 또한 매월 무료 금속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월 체험은 24일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오후 1시, 오후 2시 30분, 오후 4시, 오후 5시 30분 등 총 4회 운영된다. 회차별 최대 4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과 쉐리온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위기 청소년 긴급 생활비 지원 의결

정읍시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 해체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 3명에게 최장 6개월간 긴급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시는 지난 18일 평생학습위원회 '2026년 제1차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정읍시와 교육지원청, 정읍경찰서, 보호관찰소 등 관계 기관 담당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자 3명을 최종 선정해 지원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를 거쳐 뽑힌 청소년들은 앞으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각자 상황에 맞는 긴급 생활비나 활동비를 받는다.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한 심리 상담과 사후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해 청소년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 여름철 해수 온도 상승 발생 위험 ↑... "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어야"

익산시는 22일 여름철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상처가 있는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5-6월에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감염 사례가 집중된다.

감염 시 평균 1-2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 다리 부위를 중심으로 부종과 발진, 수포성 괴사 등 심각한 피부병변이 동반될 수 있어 신속한 진료와 치료가 중요하다.

특히 만성 간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면역저하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감염 시 치명률이 50%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 85℃ 이상 충분히 익혀 먹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 피하기 △어패류 5℃ 이하 저온 보관하기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예방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진=익산시>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국회 방문해 핵심 현안 건의

### 국비 확보 대응 사업 설명 및 협력 요청

군산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지역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22일 이길용 기획행정국장이 국회를 방문해 김의겸 의원실과 박지원 의원의실을 잇달아 찾아 군산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7년도 국가예산이 기획예산처 심의 단계에 있는 가운데, 향후

이러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의 공감대를 미리 형성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국장은 이날 면담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주 조성(484억원) △김산읍 진흥구역 추가 지정(25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1,200억원) △사용후배터리 순환이용 고도화센터 구축(34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 투자 활성화와 첨단산업 기반 확충,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 등 군산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국장은 "최종 예산 확정까지는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사전에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아우르는 대응을 통해 군산의 핵심사업들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방문을 지속하는 한편 국회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며 단계별 맞춤형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 정읍시, 복지택시 확대 운영

### 내달부터 연중무휴 343개 마을 혜택

정읍시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6개 읍·면·동 343개 마을 주민을 위해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택시를 오는 7월부터 주말과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1년 내내 쉬지 않고 운행한다.

시는 22일 시장실에서 개인택시조합,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협의회와 복지택시 주말·공휴일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세 곳의 택시 단체는 휴일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선다.

복지택시는 버스 승강장과 멀리 떨어진 농촌 주민들이 1000원만 내면 읍·면 소재지를 비롯한 주요 목적지까지 편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교통 사업이다. 그동안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다녔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에는 장보기와 병원 방문, 각종 행사 참여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확대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택시업체와 손잡고 운행 시간을 연중무휴로 늘렸다.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들은 요일에 얽매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돼 지역 교통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학수 시장은 "복지택시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농촌 주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교통복지"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누구나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환경을 빚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 미륵산성·오금산성 발굴 성과 공유

### 백제 토목 및 축성 기술 시민들에 공개

익산시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오는 23일 미륵산성 및 오금산성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미륵산성과 오금산성 발굴조사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전 10시에는 미륵산성, 오후 3시에는 오금산성에서 각각 진행된다.

익산은 백제 사비기에 조성된 왕궁리 유적을 비롯해 국가사찰인 미륵사지, 제석사지, 쌍릉 등 백제왕도를 대표하는 유적이 밀집한 지역이다.

아울러 그동안 진행된 발굴조사를 통해 성과로 도성을 보호하는 관방체계가 확인되면서 백제왕도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익산 지역 백제 성곽으로는 미륵산성, 오금산성, 금마도토성, 남산산성 등이 있다.

미륵산성은 동문지와 남문지, 치성, 건물지, 집수시설 등이 통일신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2022년부터 시작된 정상부 평탄지 발굴조사에서

백제 사비기에 축조된 원형 석축저수지가 발견됐다.

석축저수지에서는 삼국시대 토기류와 목부재를 비롯해 '형신년정월기' 명문 목간 등이 출토됐다. 병신년은 576년 또는 636년으로 추정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륵산 정상 아래에서 확인된 백제시대 추정 토루의 발굴 성과를 공유한다.

추정 토루는 흙으로 쌓은 토축부와 돌로 쌓은 석축부로 구분된다. 풍화암반을 계단식으로 고르게 만든 후 다져 쌓은 토축부에서는 일정 간격으로 목주를 설치하고 토체를 시설해 구조를 보강한 흔적이 발견됐다.

또한 토축부 바깥쪽에서 확인된 석축 성벽은 붕괴 방지를 위해 계단식 석축과 외곽석축을 조성한 후 점토와 풍화암반토를 추가 성토한 흔적이 확인되는 등 백제 사비기 미륵산의 운영 및 성격을 밝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금산성은 2016년부터 진행된 발굴 조사에서 백제시기 서문지와 석축 성벽, 집수시설, 수부(首府)명 인장, 철피(漆皮) 감옷편 등이 출토돼 축성 및 사용 시기 등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2024년 집수시설 조사 과정에서 '정사 금제식'이 적힌 봉축편이 출토돼 백제의 문서 관리 체계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 주목받았다. 봉축편은 두루마리 형태의 문서를 보관·분류할 때 사용된 목재 막대기로, 정사는 597년 또는 657년, 금제식은 현재 남아있는 식량을 뜻한다.

오금산성 현장 설명회에서는 토축성벽과 석축성벽의 발굴 성과를 공개한다. 토축성벽은 원지형을 점토로 고르게 만들어 일정한 간격의 판재를 설치한 뒤, 물성이 다른 흙을 교대로 판축하고 다시 바깥에 돌과 흙을 이용해 보강한 흔적이 발견됐다.

또한 7~9년 정도가 남아 있는 석축 성벽은 잘 다듬어진 20~30cm 내외의 사각형 석재들을 착암 및 그레이 기법을 사용해 정교하게 쌓았는데, 이는 인근의 백제왕궁인 익산 왕궁리유적의 동서축대와 같은 수법으로 주목된다.

현장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발굴조사단의 설명을 들으며 조사 현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유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농가 배수로 정비·방제 철저"

#### 고추 현장 관리 당부

정읍시가 여름철 장마와 고온 다습한 날씨를 앞두고 농가 소득의 핵심 작목인 노지 고추의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한다.

고추는 지역 농가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작목이다.

특히 착과와 생장이 활발해지는 6월 하순부터는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고 비가 그친 뒤에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탄저병, 역병, 시들음병 같은 병해와 벌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줄이고자 현장 중심의 기술 지도를 넓히고 있다.

농가에서는 큰비가 내릴 때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미리 깊게 파야 한다. 이는 뿌리 활력이 떨어지는

현상과 역병 발생을 막는 데 필수적이다. 비가 오기 전에는 탄저병 예방 약을 뿌려야 한다. 비가 그친 뒤에는 물에 잠긴 밭의 물을 재빨리 빼내고 병해충 방제 작업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계속되는 비로 흙 속 양분이 씻겨 내려갈 위험도 크다. 자라는 힘이 약해진 고추밭에는 요소 0.2% 용액이나 제4종 복합 비료를 잎에 엽면 시비를 하면 생육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강원원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장마철 전후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고추의 수확량과 상품성이 크게 달라진다"며 "현장 중심의 기술 지도를 펼쳐 고품질 고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

익산시가 고물가와 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공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26년 하반기 다리로움 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총 113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다리로움 일자리 사업 86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7명이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다리로움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공원과 체육시설, 산업단지, 공공시설 등에서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주 5일 동안 하루 4시간 근무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광자원 활용,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 등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주 5일 동안 하루 5시간 근무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근로 능력

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 익산 시민이다. 다리로움 일자리 사업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 침수 피해 예방 '총력'

#### "시민 안전 확보 최우선"

민선 9기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이 취임 전, 첫 공식 현장 행보로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 방안을 살피기 위해, 22일 군산시 시가지 침수 방지의 핵심 시설인 경포천 배수펌프장과 삼승 침수 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김 당선인은 군산시 시가지 침수 방지의 핵심 시설인 경포천 배수펌프장의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집중호우와 서해안 만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상습 침수 구역과 재해 취약 지구를 둘러보며 주요 배수로 준설 상태와 유수지 용량 등 도심 배수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군산시는 지리적 특성상 집중호우와 만조가 동시에 발생하면, 경포천의 자연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경포천 수문을 닫고 배수펌프장을 가동해 경포천의 물을 바다로 강제 배수시켜야 도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부터 배수펌프

가동에 필요한 고압 전력 수전을 완료하고, 시험 가동을 통해 펌프의 가동 여부를 점검했으며, 전기안전관리자와 직원이 24시간 상주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민선9기 인수 TF팀 안전건설국 업무보고에서도 김 당선인은 시간당 150mm 이상의 극한 강우 발생 시, 기존 방제시설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며, 단계별 침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국비 확보 방안이 포함된 종합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장기적인 침수 저감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침수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차우차 설치와 풍수해보험, 피해 복구 지원 뿐만 아니라 수해 페기물의 신속한 처리, 지하상가·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 예방 대책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 제9대 정읍시의회, 마지막 회기 돌입

정읍시의회는 22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택시도 시민의 발입니다'를 통해 택시는 생활밀착형 공공교통 수단임을 강조하며, LPG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대한 유가안정 지원 대책 마련과 바우처택시·농촌복지택시의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김석환 의원은 '담곡마을 발효

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자'를 통해 담곡마을의 발효문화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경관농업단지 조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발효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오늘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좋은 고창’ 최선 2(題)

## ‘보육인 한마음 대회’ 개최

현장 노고 격려

고창군이 지난 19일 고창 축협 한우명품관에서 ‘제9회 고창군 어린이집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고창군>

고창군 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형철)가 주최하고, 고창군이 후원했다. 관내 보육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현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호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고창군수 표창 등이 수여됐다. 이어 어린이집연합회는 이광원 팀장(고창군청 아동보육팀), 류선화 센터장(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힐링 토크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으며, 업무로 지친 교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했다. 고창군은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 △대체 조리사 지원사업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 △영양비 지원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고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보육교직원은 아이들의 성장과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핵심 주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와 교직원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이돌봄사 역량 강화 교육

돌봄 인프라 확충

고창군은 지난 19~20일 관내 활동 중인 아이돌봄사 38명을 대상으로 ‘2026년 아이돌봄사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매년 진행되는 이번 의무교육은 그동안 전주에 위치한 아이돌봄공역지원센터를 이용해 왔으나, 지난 4월 전북특별자치도 공모를 통해 고창읍 소재 민간 운영 ‘고창아이돌보미교육기관’이 신규 지정되면서, 운영방식이 대폭 개선됐다.

이로써 돌봄사들은 이동 불편 없이 지역 내에서 더욱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총 16시간 과정의 이번 교육은 직무 역량 강화와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둔다. 주요 교육 내용은 △영·유아 발달 이해 및 신생아 돌봄 실무 △감각놀이 중심의 발달지원 △영유아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 분석 △아동 안전 예방 등 현장 대응

역을 높일 수 있는 실무 중심 과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전환 제도에 발맞추어, 활동 중인 돌봄 인력들이 한층 더 높아진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미란 고창군 인재양성과장은 “돌봄 전문가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앞으로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고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현재 연간 70여 가정, 110여 명의 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군 자체 시책으로 양육공백 가정의 본인부담금 50%(연간 약 8,000만 원 규모)를 추가 지원하는 등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과 돌봄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클린농촌단’ 활동 본격화

깨끗한 농어촌 환경 조성

부안군은 주민이 함께 참여해 농어촌 지역 쓰레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클린농촌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내 13개 전 읍·면이 모두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총 126명으로 꾸려진 클린농촌단은 마을 안길이나 하천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공동집하장 및 쓰레기

거점수거장소를 청결하게 정비하는 등 농촌지역 환경정비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게 된다.

실제 클린농촌단은 22일 백산면에서의 활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이후 각 읍·면별 약 5회에 걸쳐 대대적인 수거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과 클린농촌단 활동을 통해 지역의 방치된 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클린농촌단의 전반적인 활동성과 등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살기 좋은 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

11만1500여명 방문 대성황

고창군의 대표 여름 축제인 ‘제23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11만 1500여 명이 찾는 등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축제는 연령별, 가족 단위, 연인들을 위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돼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직접 잡은 장어를 즉석에서 손질장어로 교환해 주는 ‘장어잡기 체험’과 시시 행사는 연일 인산인해를 이뤘다. 물총싸움과 스티플 넘치는 장애물 3종경기, 수박 빨리먹기 대회 등은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아울러 고창 수박의 우수성을 알리는 ‘수박 품평회’와 화려한 ‘수박 카빙대회’ 작품 전시 등도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이번 축제는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성을 높인 ‘체험형 축제’로 호평을 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맛과 즐거움, 체험이 가득했던 이번 축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고창에서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어 가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해경, 학생~노년층까지

연안 사고 안전교육 전격 확대

부안해양경찰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연안 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전방위적 해양안전망 확대 구축에 나선다.

부안해경은 최근 높은 인명피해 비율을 보이는 연안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존 학생 대상의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지역 내 안전 취약계층인 노년층까지 전격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이 이처럼 연안안전교육의 강도를 높이고 대상을 다각화하는 이유는 연안사고의 높은 치사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2025년) 전국에서 발생한 연안사고는 총 568건(사망·실종 110건)으로, 일반 해양사고 대비 사망 위험성이 높아 선제적인 안전문화 확산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지난 4월부터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7개교(1,046명)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가동 중이다. 7월까지 남은 교육 일정을 차질 없이 완수할 계획이다. 학생 교육은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실습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요령 등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노년층 맞춤형 연안안전교육’의 전격적인 신설 및 내륙 지역으로의 확대다. 부안해경은 바다와 인접한 부안은 물론, 여름철 부안 바다를 자주 찾는 내륙 지역 거주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주, 익산, 김제, 정읍 지역의 노인대학을 직접 찾아가 특화된 교육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성덕 서장은 “부안 연안을 찾는 방문객이 많은 인근 주요 도시의 노인대학까지 선제적으로 찾아가 교육함으로써, 사후 구조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망을 완성하려 한다”라며 “미래 세대인 학생들부터 도내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부안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경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 고창군 드림스타트

‘슬기로운 부모교육’ 성료

전북 고창군 드림스타트가 지난 20일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2층 다목적실에서 관내 드림스타트 대상 4가구와 함께 ‘슬기로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립아동발달센터, 밝은마음언어학습센터, 행복한 치유농장 등 지역 내 유관 기관들과 연계해 내실 있게 운영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족 간 소통 방법을 익히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각 가정에서 가족 간 올바른 소통 방법을 배우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국창 김소희 선생 서거 31주기 행사’ 고창서 열려

고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최·주관한 ‘국창 김소희 선생 서거 31주기 기념 행사’가 지난 20일 흥덕면 김소희 생가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근현대를 대표하는 여성 명창인 김소희 선생은 지난 1917년 고창군 흥덕면에서 태어나 천부적인 재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여기에 삶과 예술에 대한 자기성찰과 노력을 더해 완숙한 판소리의 예술적 경지를 이룬 대한민국 대표 여성명창으로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가-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파리국제민속예술제와 유럽

순회공연을 비롯 동경올림픽 공연, 미국 카네기홀 공연, 미국 독립기념 순회공연, 서울올림픽 폐막공연 등을 펼치며 한국의 판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크게 공헌했다. 선생은 1995년 4월 향년 79세 일기로 타계했으며 묘소는 고창읍 노동리 화산에 모셔져 있고 위패는 고창 선운사에 봉안됐다.

신유섭 이사장은 “대한민국 판소리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판소리의 본 고장으로서 전통문화 진흥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김제시>

## 김제시 ‘청렴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김제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청렴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전 부서로 확대 도입한 ‘1부서-1핵심 청렴시책’의 실행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성주 시장을 단장으로 부시장과 국·과·소장 등이 참여하는 청렴정책추진단은 이번 2차 회의에서 지난 1차 회의의 반부패 추진방향에 발맞춰, 각 부서가 자체 발굴한 청렴 시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청렴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추진 단위를 기존 ‘1국·소’에서

청렴리더인 부서장이 중심이 돼 청렴정책을 ‘1부서’로 확대·세분화한 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허가·계약·보조금 관련 부서의 투명성 강화 대책을 비롯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 모니터링, 부서 내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 부서별 특색을 반영한 다채로운 과제들이 공유됐다.

시는 이번엔 확정된 전 부서의 청렴과제를 분기별 맞춤형 과제와 연계해 상세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청정도시 김제’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부안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스마트폰과 SNS 사용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 및 유포, 사이버 성희롱 등)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올바른 디지털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심코 행할 수 있는 디지털 행동이 타인에게 큰 고통을 주는 범

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가해 및 피해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큰 호응을 얻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방과 후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습, 생활관리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사업이다.

현재 참여자를 상시 모집 중이며 참여를 원하는 군 거주 초등학교 4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온봉기 기자

# 김제시, 국가예산 확보 ‘사활’

## 정성주 시장 기획처 공략 행보

김제시가 지역성장을 견인할 핵심 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찾아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며 국가예산 1조원 확보를 향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부처 예산안이 지난 5월말 기획처로 제출돼 기획처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안 최대 반영을 위해 기획처 설득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22일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을 시작으로 사회예산심의회,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 문화예산과장 등 기획처 예산 책임자들을 직접 만나 김제시 중점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예산안 반영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농업로봇 분야 기술개발 및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농업 AI로봇 표준화 및 온디맨드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 새만금 녹지면적 확충을 위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사업, 내

수면 양식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내수면 디딤돌 양식장 구축사업 등의 시의성과 필요성을 피력하며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 내려 노력했다.

정 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는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사업의 추진 기반이자 지역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 초까지 이어질 기획처 예산 심의에서 주요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 지역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끈질기게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의료 공백 제로화 ‘총력’

## 자체 의사 채용 추진 다각적 의료 안전망 구축

부안군은 최근 공중보건조사 배정 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지역 보건기관의 진료 기능 위축을 막고 1차 보건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우수 의사 인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공공보건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필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적극적인 구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자체 의사 채용 추진은 최근 부안성모병원과의 지역보건기관 필수 인력 지원사업 업무협약, 보건복지부 시니어 의사 활용 제도 등과 마찬가지로 군의 선제적 의료인력 확보 대책 중 하나다.

공보의 감소라는 대외적 변수 속에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군민의 기본 복지권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군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발맞춰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군은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진료 중단이나 순회진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엔 채용되는 의사는 보건기관 최일선에 배치돼 진료 및 만성질환 관리 등 군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동력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의료 인력 수급난 속에서도 군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공공의료 인프라만큼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군의 확고한 의지”라며 “민·관 협력 모델 구축은 물론, 전문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인력 매칭 등 촘촘한 보건 의료 환경을 조성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김제시, 신협과 ‘전통시장 관광 투어’ 운영

## 상인해설사 동행 문화재 및 시장 소개

김제시는 지난 20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김제전통시장 관광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협이 상생 협약을 맺고 문화관광형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관광 연계 상생투어’ 프로그램이다.

이날 공주 동부신협 회원 130여 명은

관광버스 3대를 임차해 김제전통시장을 방문했으며, 상인해설사의 안내로 김제향교와 동헌 문화재를 둘러보고 김제전통시장과 청년몰에서 김제 특산물과 먹거리를 구입하는 장보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투어상품은 전통시장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몰 상인해설사가 동행해 인근 문화재 해설과 전통시장의 역사·전통을 소개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은누리상표권, 장바구니, 김제쌀(850g)을 기념품으로

제공해 쇼핑의 즐거움과 활기를 더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김제시를 찾아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김제시 관광투어와 지평선축제, 전통시장, 5일장에도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내달 11일에는 강진 신협 회원 45명이 김제시를 방문해 원평·금산사 일대 관광지와 김제전통시장을 투어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 무주에 번지는 나눔의 온기

## 무주군귀농귀촌협, 재능 기부

이불 세트·쿠션 등 제작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가 지난 22일 지역 내 귀농·귀촌인들과 주민20여 명이 함께 만든 쿠션 120개를 무주 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날 전달된 쿠션은 지난 10일부터 기부 참여자들이 실용 교육 '솜씨를 뽐내보자(총 8회)'를 통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이번 활동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배운 기술을 나눔으로 연결했다는 점,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문화 확산의 계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박 모 씨(52세)는 "함께 배우며 만든 쿠션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이번 교육은 함께 배우며 마음도 나눌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에 따르면 '솜씨를 뽐내보자'는 6월 10일~11일, 17일~18일 오전·오후반으로 진행됐으며, 20여 명의 교육생들은 나순너 강사로부터 바느질을 직접 배우며, '광목'을 활용해 이불 세트와 쿠션 등의 생활용품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천순(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장은 "이번 교육은 배움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 사회에 꽃 피울 온정의 씨앗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 대전 '월드 클린 시스템', 기부금 기탁



김덕배대표, 고향무주에 "보탬이 되고 싶다"

'월드 클린 시스템' 김덕배 대표가 22일 무주군에 고향 사랑기부금 3백만 원을 기탁했다.

김덕배 대표는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평촌마을에서 나고 자라 지금은 대전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으로, 고향

무주가 잘 되고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적으나마 고향 무주와 이웃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고 보람차다"라며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국제로타리 3670지구 장수로타리클럽 제49대 진동근 이임회장 제50대 권정열 취임회장의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장수로타리클럽>

## 장수로타리클럽 제50대 권정열 회장 취임

로타리정신 계승다짐

국제로타리 3670지구 장수로타리클럽 제49대 진동근 이임회장 제50대 권정열 취임회장의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제로타리 3670지구 조관현 차기총재를 비롯 자매클럽인 대구대양로타리클럽 김재봉 회장을 비롯 남원, 진안, 사선대, 임실클럽 회장, 박용근 도의원, 김광훈 군의원, 김남수 군의원, 임정권 당선인, 한선미 당선인 등 지역인사

와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회장의 출범을 축하했다. 제50대 취임한 권정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지역에서 로타리 정신인 봉사과 우정의 전통을 지켜온 로타리안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큰절을 했다.

제49대 이임회장 진동근 회장은 전북에 가장 인구수가 적은 장수지만, "봉사"에서 만큼은 작지만 작지 않은 장수라며 이임사를 마쳤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농업인 안전관리 강화

## 합동 모니터링 실시 안전관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합동으로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과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 합동 모니터링'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모니터링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일수 증가와 농촌 사회의 고령화 심화에 따른 농업인 건강 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농업 안전 보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 16일 임실군 성수면 구곡마을 경로당에 마련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농작업 안전관리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

을 밀착 점검하는 한편,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임실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 안전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8,850만 원 규모로, 3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을 위해 고령 농업인의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비 및 개인 보호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작업 안전 컨설팅과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날 점검반은 안전 보조장비의 실제 보급 실태와 사업 지침 준수 여부, 컨설팅 추진 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강화 지원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교육을 넘어 농업인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안전365 챌린지'를

운영하고 안전 보조구를 지원 중이다.

특히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 2명을 '안전리더'로 위촉하여 마을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합동 점검반은 이날 교육 참여율과 수료 현황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안전리더의 고충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여름철 온열질환 집중 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생물개천임실군연합회 회원 12명을 '온열질환 예방요원'으로 위촉하여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을 전개 중이다.

예방요원들은 농가를 직접 방문해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예방물품을 배부하는 등 든든한 피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폭염 대응 체계 구축 현황과 요원들의 활동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졌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점검

## 응급환자 신속 이송 체계 구축

장수군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관내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이착륙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환자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 이송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헬기 인계점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구급차 진입

장수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0%를 웃도는 의료취약지역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헬기 활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앞서 장수군은 지난 5월 원광대학교 병원과 닥터헬기 이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전문치료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런 현장점검에서는 △구급차 진입

로 및 대기장소 확보 여부 △주변 장애물 존재 여부 △안내관 설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응급의료헬기 인계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과 상급의료기관 이송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심민 임실군수, 12년 군정 마무리

## 공직자들에게 감사인사

심 민 임실군수가 12년간 이어온 군정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함께 임실의 변화를 이끌어 온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심 군수는 "지난 2014년, 처음 취임한 이후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임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 없이 달려온 시간이 어느덧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며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속에 임실군 최초의 3선 군수로 임기를 명예롭게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군민들의 믿음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임실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동안 함께 한 공직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심 군수는 지난 12년동안 임실군이 이뤄낸 괄목할 만한 성과도 되돌아봤다. 육정호 부총리 생태공원과 출렁다리

조성을 통해 전국적인 관광명소를 탄생시켰고, 임실N치즈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시켰다.

또한, 오수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성수산 왕의 숲 자연휴양림 활성화와 사계절 축제의 성공적인 안착 등 임실의 관광지도를 새롭게 그려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농업과 복지,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 균형발전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내며 임실군의 경쟁력과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강조했다.

심 민 군수는 오는 26일 오후 4시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리는 퇴임식을 마지막으로 12년간의 군정을 마무리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임실군, 반려동물 동반 '댕댕캠핑' 성황

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대

임실군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대한민국 대표 '반려동물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군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을 중심으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즐기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인 '임실 댕댕캠핑'을 운영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전 모집 단계부터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36명을 선발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

객의 체류시간 연장과 지역 소비 확대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마련됐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와 '임실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돼 의미를 더했다.

이번 '임실 댕댕캠핑'은 숙박, 식사, 체험, 관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융복합 관광상품으로서, 단순 방문에 그치던 관광 형태를 체류형으로 전환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생활인구를 유입시키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가족센터, 제3회 온가족사랑축제 개최

20일, 73가정 170명 참여

장수군은 장수군가족센터(센터장 홍선희)가 지난 20일 지역주민 73가정, 17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제3회 장수군 온가족사랑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섯 가지 감동, 오감으로 물드는 가족사랑"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급격한 가족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오감(五感)을 활용한 정서적 교감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해 모든 형태의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포용

적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의미를 뒀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월 진행된 가족사진 챌린지와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제7회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시상식이 함께 열렸으며, 출품작 전시도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했다.

홍선희 센터장은 "이번 축제는 오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정서적 교감을 높이고, 가족의 소중함과 포용적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956명 안정적 운영

진안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협력 도시인 베트남 광응아이성 관계자 일행이 22일 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지속적 우호 교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5년 양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현지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베트남 내무부 부국장을 비롯한 광응아이성 공무원 일행은 계절근로자들이 생활하는 농가 속과 농작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근로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근무 환경을 세심하

게 살폈다. 또한 타국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진안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988명을 배정받아 현재 956명이 입국해 지역 농가에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194명이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베트남·라오스·필리핀 등 3개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는 762명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지역 내 농가에 안정적으로 배치돼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 꿈의 무용단 임실, '사선 아래 피어난 부채꽃' 공연

임실문화원(원장 박정우)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의 무용단 임실' 단원들이 지난 6월 20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특별 출연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연 활동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꿈의 무용단 임실'은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가정기관으로 2년 차 활동에 접어들고 있으며 임실 지역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25명의 무용단원을 모집하여 정규 무용수업, 여름 무용캠프, 특별공연 관람, 지역연계 공연 활동, 정기발표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에는 '사선 아래 피어난 부채꽃'이라는 주제의 작품을 선보여 행사에 참여한 지역민들과 학부모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 천천면지사협,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나서

장수군 천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조규덕)는 지난 18일 천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및 연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위기 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회의를 마친 후 협의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협의체는 사전 대상자 선정 회의를 통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4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보행보조기를 전달하고 안부 확인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진안소방서, 물놀이 안전요원 사전교육

진안군과 진안소방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22일 진안군청 강당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및 119시민수상구조대원 배치 전 합동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름여를 관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물놀이 현장에서 피서객의 안전을 책임질 물놀이 안전관리요원과 119시민수상구조대원 등 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수난구조 전문강사와 진안소방서 구조대원 등 수난구조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

사전교육을 마친 안전관리요원과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우일암반일암 등 관내 주요 물놀이 지역 14개소에 분산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이용객 안전수칙 홍보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인명구조 활동 등 현장 안전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 삼례읍, 장마 대비 하천 쓰레기 10톤 수거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21일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석탑천 일대에서 대한환경운동본부(대표 임공택)와 합동으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방치된 쓰레기 10톤을 수거했다.

이번 활동은 2026년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기간을 맞아, 집중호우 시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쓰레기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수질 오염과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임동빈 삼례읍장을 비롯한 대한환경운동본부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른 아침부터 석탑천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과 부유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으며, 구슬땀을 흘린 끝에 총 10톤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정화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임동빈 삼례읍장은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체계적인 삼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이천 수상안전·응급처치 강사,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기탁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김홍식)는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 이천 강사가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천 강사는 2016년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교육 수료생 계기로 적십자 활동에 참여했다. 이후 수상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 강사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이천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 강사는 "응급처치와 수상안전 교육을 하며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응의 중요성을 느껴왔다"며 "이번 성금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식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회장은 "전달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고창군에 1090만원 기탁

"사회적 책임 다하고 지역발전에 힘 보태겠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윤여일)가 22일 고창군청을 찾아 1090만원 상당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는 지난해 1850만원 기탁에 이어 올해까지 연이어 고창군에 마음을 전해 왔다.

고창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인재 육성, 취약계층 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등 지역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여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기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뜻깊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가 22일 고창군청을 찾아 1090만원 상당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사진=고창군>



이디야커피 군산조촌점, 저소득 가정에 텀블러 전달

이디야커피 군산조촌점(점장 주진혁)은 22일 조촌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200만원 상당의 친환경 텀블러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텀블러는 이디야커피의 친환경 제품으로,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디야커피 군산조촌점은 착한가게로 지정돼 매월 정기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물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디야커피 군산조촌점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도영 조촌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이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생필품 꾸러미 기부

복지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와

익산시는 22일 익산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이 라면과 화장지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꾸러미 334개(1,5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꾸러미는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을 통

해 독거노인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해석 단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번 생필품 지원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함께 나눔을 실천해 온 단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복지 그늘 없는 따뜻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상관면에 핀 청년들의 '농촌 재능 나눔'

완주군 상관면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학생들의 따뜻한 재능 나눔이 농촌 마을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군은 지난 20일 상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관면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상관면 건강증진 농촌재능나눔' 행사를 생활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원광대학교 간호대학 이명인 교수 외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등 3개 학과 학생 75명이 재능 나눔

참여단으로 활약했다. 이들은 각자의 전공을 살려 치매 예방 및 감염관리 교육, 심폐소생술 실습, 근골격계 자가운동법 안내는 물론 주민들을 위한 즉석 사진 및 액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원광대학교 학생봉사단은 지난 2024년, 2025년에 이어 올해 상관면까지 '찾아가는 농촌재능나눔'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김제시 문화관광과, 농촌 일손 돕기

김제시는 문화관광과가 농번기를 맞아 인력 부족으로 시름하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직접 현장 지원에 나섰다

문화관광과는 지난 19일 진봉면 상귀리에 위치한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은 마늘과 양파의 본격적인 수확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으로 인해 제때 수확을 마치지 못한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문화관광과 직원 6명이 참여해, 진봉면 상귀리 일원의 마늘 및 양파 수확 작업에 힘을 보탰다.

참여 직원들은 공들여 키운 농작물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철저한 사전 지도와 주의 의무를 다하며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남원 드림스타트, 아동·가족과 부산 가족여행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부산 일원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30명과 함께 뜻깊은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번 여행은 바쁜 일상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다양한 여건으로 인해 평소 가족여행을 떠나기 힘들었던 가정에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여행에 참여한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부산 롯데월드를 방문해 유쾌하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으며, 국립과학관에서는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과학 체험을 즐겼다. 또한, 바다와 어우러진 절경을 자랑하는 해동 용궁사를 관람하며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여행에 참여한 한 가족은 "정말 행복했다"며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 준 남원시에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건강관리 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금주, 금연



하루 7~8 시간 숙면



건강한 식습관



매일 충분한 물 마시기

〈一事一言〉



순창군이 증명한 지방 자치의 가치와 미래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무상급식을 넘어 '정주 복지'로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은 시대다.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기업 유치부터 현금성 지원, 거창한 랜드마크 조성까지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이 쏟아지지만, 정작 지역을 떠나려는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정착을 고민할 때 기준은 의외로 소박하면서도 본질적인 곳에 있다. 매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는 '체감형 복지'가 결국 그 지역의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발표된 순창군의 학교급식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순창군이 관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인 주요 평가 항목 모두 96%를 웃도는 압도적인 긍정 응답이 나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무려 97.4%에 달했고, 가격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응답도 96.7%를 기록했다.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급식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도 96%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숫자들이 증명하는 성과는 명확하다. 순창군의 급식 정책은 단순히 선거철 표심을 노린 '선심성 퍼주기'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짚어내고 가려운 곳을 긁어준 '송곳 행정'이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성공의 이면에는 순창군 최영일 군수의 과감한 재정적 결단과 독심

이 자리 잡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광역자치단체의 도비 지원금 수준에 맞춰 급식판을 채우려 할 때, 순창군은 과감히 자체 군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행정력을 발휘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예산에 맞춰 아이들의 먹거리 질을 타협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이었다. 덕분에 관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총 40개교, 2,010명의 학생들은 매일 최고 품질의 도내산 친환경 쌀과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일지라도 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교육 복지의 격차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순창군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지닌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좋은 밥 한 끼를 먹였다'는 일차적 성과에 머물지 않는다. 이 정책은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지역 상생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구축해 냈다. 먹거리를 소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안전한 식단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덜 수 혜택을 입는다. 동시에 그 식자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지역 농가들은 판로 확보의 불안감을 떨쳐내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다. 복지 예산이 일방적인 시혜성 소비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농업을 살리고 지역 경제의 피트를 돌리는 '생산적 투자'로 치환될 수 있음을 순창군이 몸소 증명해 보인 셈이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이자, 지방 자치가 지향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다.

나아가 이번 성과는 민선 8기 순창군이 내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라

는 슬로건이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다. "먹는 고통이 없고, 먹거리로 차별받지 않는 순창을 만들겠다"는 최영일 순창군수의 먹거리 복지 철학은 교육 공동체의 전폭적인 신뢰라는 가장 확실한 보담으로 돌아왔다. 행정이 주민의 삶을 진정성 있게 바라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효능감은 극대화된다.

이제 순창군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한 교육 지원 사업의 영역을 넘어섰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젊은 층의 이탈을 막는 강력한 '정주 복지' 정책이자,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미래 투자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도 앞에서, 순창군이 던진 '친환경 밥상'이라는 승부수는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준다.

군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우수 농산물 공급 비율을 한층 더 확대하고 급식 유통 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성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먹거리 안전망을 짜겠다는 의지다. 대한민국 지방 자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순창군의 건강한 실험은 가장 따뜻하면서도 확실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밥상 위의 자치가 만드는 지역의 미래, 순창의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사설

독립성 뒤에 숨은 무책임, 선관위는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책임지는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다. 그렇기에 선관위는 그 어떤 국가기관보다 엄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우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하면서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적 신뢰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관리 부실과 보고체계 미작동, 지휘·감독 소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와 징계를 권고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현장 실무자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국민의 주권 행사가 이뤄지는 선거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관위 조직 전반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책임의 화살이 실무진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하급 직원 몇 명의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고 책임자까지 수사의뢰 권고

대상 포함됐다. 이는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도 져야 한다는 상식이 비로소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독립성을 강조해 왔다.

물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독립성이 무책임의 방패가 될 수는 없다. 통제받지 않는 권한은 결국 오만으로 이어지고, 오만은 조직의 부실과 폐쇄성을 키운다. 이번 사태는 독립성과 책임성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다.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선관위에 필요한 것은 변명도, 책임 회피도 아니다. 국민 앞에 진솔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는 일이다.

선관위의 위기는 투표용지 부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문화에서 비롯됐다. 독립성 뒤에 숨은 무책임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독자투고

양귀비 불법 재배 근절, 주민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경찰서에서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재배 사례 5건을 적발했다.

매년 5-6월이 되면 전국 곳곳의 텃밭과 주택가 화단에서 양귀비가 발견된다. 붉고 화려한 꽃 때문에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양귀비는 마약 성분인 모르핀과 코데인 등을 추출할 수 있는 식물로, 재배 목적과 관계없이 국가의 엄격한 관리 대상이다. "꽃이 예뻐서 심었다", "예전부터 집에서 길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성이 면제되지 않는다.

최근 우리 관내에서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텃밭이나 주택 주변에서 관상용 또는 관행적으로 재배한 경우였지만, 재배 목적과 관계 없이 모두 범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불법 재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양귀비와 비슷한 꽃으로 개양귀비가 있

어 주민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양귀비와 개양귀비는 여러 특징에서 구분할 수 있다. 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리가 매끈해 털이 거의 없고, 꽃이 진 뒤에는 둥글고 큰 열매가 맺힌다. 잎은 줄기를 감싸며 자라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개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리에 거친 털이 많으며, 열매는 작고 길쭉한 형태를 띤다. 잎은 잘게 갈라져 있고 줄기를 감싸지 않는다.

양귀비 불법 재배는 단순히 꽃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마약류 공급의 원천을 차단하는 중요한 예방 활동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서 양귀비로 의심되는 식물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무주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순경 심성범

오늘의시

강으로 가서 꽃이여 / 김사인

이마에 손을 얹고 꽃이여  
이마에 여윈 손 얹고 꽃이여

늪은 여뀌때 거친 종아리

시든 풀의 굵은 등엔  
서리가 희리

어떻게 흘러가는  
강가로 가자  
어린 자갈들은  
추위에 입술 파랗고

강으로 가서 우리는  
강으로 가서  
다만 강물을 보자  
하늘엔 찬 별도 총총하리

취한 듯 슬픔인 듯  
강으로 가서  
다만 묵묵히 강물을 보자  
이마에 손 얹고 꽃이여

시인 약력 : 1956년 충북 보은 출생.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대 반정부 유인물 배포 미수 사건'에 연루돼 74학번 동기들과 함께 구속됐다. 1982년 '시와 경제'에 동인으로 참가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이후 시인으로, 평론가로 등단하고 민중문학 진영의 이론가로 활동했다. 조정환, 박노해와 함께 '노동해방문학'을 창간하고 발행인이 됐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창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010-5242-38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잠시멈춰 분류하는 습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꿉니다

JBT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 정읍시, 소상공인 살리고 일자리 늘린다 청년·골목상권 전방위 대책 '가속'

정읍시가 민생 안정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 생태계를 다지는 한편, 국비를 비롯한 총 163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급과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등 굵직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한 데 이어, 현재는 정읍생고를정다운상권 활성화 사업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현장 체감형 정책들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18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활발히 가동하며 상반기의 성과를 하반기 지역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편집자 주)

## 일자리창출위원회 가동...맞춤형 취업 지원 정읍사랑상품권 12%로 확대 선포 청년 취업·창업·주거·복지 아우르는 18개 사업



■ 일자리창출위원회 가동과 맞춤형 취업 지원 인프라 고도화

고용 창출의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맡은 정읍시 일자리창출위원회는 2025년 1월 출범 이후 현장 중심의 고용 정책을 활발히 이끌어오고 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일자리경제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 등 당연직 3명에 학계, 경제계, 시의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10명을 더해 총 13명 이내로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3번의 회의를 개최해 일자리 정책의 기본계획과 세부추진 전략을 세우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등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 지난 5월 올해 첫 회의를 통해서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을 살피고 다가오는 민선 9기 일자리 정책 안건 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다가오는 8월과 12월에도 회의를 열어 고용 안정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 말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와 연계해 수성택지3길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에 자리한 정읍시 일자리지원센터는 올해도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활용해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센터는 생산, 사무, 요양보호 등 직종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 중인 3151건의 구직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맞춤형 알선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 직업상담사의 일대일 상담과 동행 면접은 상시 진행 중이며, 이달(6월)과 오는 10월에는 고용 활성화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의 핵심 성장 동력인 바이오 기업 지원 사업은 지난 3월 참여 기업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현재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



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181억원 투입,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상권 부활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도 순조롭게 집행되며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국비 78억 6300만원, 도비 6억 4460만원, 시비 96억 1040만원을 합쳐 총 181억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은 정읍사랑상품권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확대해 선포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올해 총 발행 규모는 1040억원으로 월 80억원을 기본 발행하되, 명절 등이 포함된 2월과 9월, 가정의 달인 5월, 연말인 12월에는 100억원으로 확대 발행해 가계 지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순환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장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정읍생고를정다운상권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80억원(국비 40억, 도비 8억, 시비 32억) 규모로 올해 4년차를 맞았다. 올해에는 17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정다운 투어패키지, 창업공간채우기, 상권 노후거리 정비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며 생고를시장과 주변 상권(중앙로·우암로·새암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한층 강화됐다.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125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자금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금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5월부터 업체당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연 1%를 초과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연 3%까지 이차보전을 지원해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경영 안정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상반기에 20억 5000만원 월세 지원과 전입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큰 호응 속에 추진되고 있다.

경제적 지립을 돕기 위해 본인 납입금만큼 시가 동일 금액을 더해주는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씩 지원하는 지역정착수당, 청년활력수당도 청년 근로자와 미취업 청년들의 든든한 자산 형성 버팀목이 되고 있다.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디딤돌 정책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기간별 참여수당 50만원에서 350만원 제공, 미진학 사회초년생을 위한 구직지원금 100만원 지급,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비 지원 등은 청년들의 구직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취업 이후에도 신속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다.

예비 창업가와 청년 창업가에게는 창업 자금 지원과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며, 상생협력연구센터를 통한 기술 이전 창업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기업을 위한 일대일 세무회계 자문과 세무기장 수수료 지원도 진행 중이다.

중심 거점인 청년지원센터는 학습방(스터디룸)과 개방형 공간(오픈스페이스)을 상시 개방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협의체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인적 교류(네트워킹)를 넓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소방 안전망 구축 본격화

소규모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이 상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시는 지난해 조례 제정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친 데 이어, 지난 3월 상동과 수성동 구역을 중심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신청 요건을 갖춘 상점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 기준은 소상공인 점포가 2000㎡ 이내에 15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 조직이 구성된 구역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운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 확대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관련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시는 상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회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고, 지역상권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후 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다져진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일자리 정책의 기틀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민생 경제 회복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소상공인과 청년 모두가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